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2대 대표회장장에 장석진 목사가 취임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남북통일 위해 기도

세기총 장석진 대표회장 취임감사에 배 드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장석진 제2대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가 18일 오전 8시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장석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1년의 임기 안에 남북한 통일기도회를 갖고, 디아스포라가 함께 기도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감사예배는 사회 한기형 목사(세기총 공동회장, 기감 미주연회 전 감독), 환영사 박효우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기도 김병근 목사(미주성결교 총회장), 찬양 예다미합창단, 설교 이정근 목사(미주성결대 명예총장), 축사 한영훈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회장), 감동 미주여성코랄, 취임사 장 대표회장, 광고 송병기 목사(세기총 서기), 감사패 전달, 축도 정해진 목사(해외한인장로회 경정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거룩한 팔”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이정근 목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장석진 목사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축사에서 한영훈 목사는 “장석진

목사는 세기총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세기총 위에 은혜를 주시길 기도한다”고 했다. 김요셉 목사는 “오대양 육대주에 흠어진 디아스포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장석진 목사의 남은 생애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란다”며 “축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역이 세기총을 통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축사했다.

장석진 목사는 취임예배 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장 목사는 오는 광복절에 기념예배를 통일 기도회로 드릴 계획이라 밝혔다. 8월 16일에서 21일까지 국내외의 지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두산에서 기도회를 열고 두만강 등지를 답사한다.

그리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기도하는 “750만 디아스포라 기도회”를 남북 통일과 세계선교에

초점을 두고 준비 중이다. 세기총은 11월에 한민족 통일에 관해 연구하는 포럼도 3박 4일간 계획 중이다.

지난달 25일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장 목사는 뉴욕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뉴욕교협 회장, 뉴욕목사회 회장, 미주성결교 총회장, 미주성결대 이사장 등 교계에서 중직을 맡아 왔다. 최근에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장 목사는 세기총의 사역으로 △초대 회장이 닦은 터전과 진행한 사업들을 계승 △세기총의 필요성을 알리고 역할을 소개하는 활동 △산하 16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초청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통국 기도회를 적극 지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교계와의 연대 △한인선교사들의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는 연합 △세계 한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 추진 △정치색을 배제한 복음적 사역 감당 등을 약속했다.

한편, 세기총 대표회장은 한국과 해외가 번갈아 가며 배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토마스 멩 기자

월드컵 기간 성경 4백만권 배포

“세계의 축구팬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길 희망”

브라질성서공회(The Brazilian Bible Society)는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브라질을 찾는 수많은 축구팬들과 접촉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에게 4백만 권의 성경책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서공회 지도자들은 “전 세계 축구팬의 절반이 브라질에 모여 3백만명의 지역 팬들에 합류할 예정”이라며 “이들 모두와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브라질성서공회 루디 짐머(Rudi Zimmer)는 세계성서공회에 “브라질인들은 축구에 미쳐 있다. 축구에 대한 집착은 다음 두 주간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는 성경이 모든 흥미진진함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길 원한다. 월드컵은 이곳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브라질 및 해외축구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유례 없는 기회다. 우리는 이를 돕고 격려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수백만 권의 성경책과 더불어, 포르투갈어와 8가지 언어로 번역된 요한복음 사본 2만 장도 배포된다. 브라질

성서공회는 또한 월드컵 특별판으로 포르투갈 성경과 신약성서도 발간했다. 이 밖에도 약 1,600개의 지역교회와 사역단체들이 ‘페어플레이 브라질(Fair Play Brazil)’ 운동을 위해 성서공회와 협력하고 있다. 12개 도시에 퍼져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성경책을 나눠줄 뿐 아니라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를 안내하며 팬들을 돕고 있다.

짐머는 “페어플레이 브라질’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고린도 전도 여행으로 이끈 환상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가능한 많은 이들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축구팬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브라질 교회들은 수백명의 연약한 아이들이 월드컵 기간 중 성적 착취의 위험 가운데 노출돼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강해진 기자

SPU 총격으로 숨진 폴 리, 한 알의 밀알 돼

지난 5일 시애틀 퍼시픽 대학(SPU) 총격사건으로 숨진 폴 리(19) 군의 장례예배가 지난 15일 오리건 주 비버튼의 빌리지 침례교회에서 가족과 친지, 덴 마틴 SPU 총장, 지역 주민 등 수백명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거행됐다. 추모사를 전한 사람들은 “폴은 매우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넓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줬다”며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그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회 로비에 비치된 게시판을 리 군과 그의 가족들을 향한 각종 색깔의 메시지 스티커로 가득 채워지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마틴 총장은 “폴 리 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이 재단

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 리 군의 가족들은 아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폴 리 재단을 설립하고 정신질환자들을 돕는 일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인사회 커뮤니티에서 보내준 위로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폴 리 재단은 공식 사이트(paulleefoundation.org)를 열고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후원금은 웹사이트나 우편(The Paul Lee Foundation P.O. Box 219206, Portland, OR 97225)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미국 내 모든 웰스파고 은행에서 “The Paul Lee Foundation”으로 기부할 수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KCC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귀하와 교회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본 미기총 제16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사오니 대의원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전 미주 교회협의회 회장, 증경회장, 각 교단장, 증경교단장, 공인된 기독교단체장 선교기관 대표
 제목: 제16회 미주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 건

- 주 제: “건강한 이민교회를 위한 진단과 처방”
- 주제강사: 박희민목사, 윤사무엘목사, 김선배목사, 조갑진목사
- 성회강사: 원팔연목사(전주 바울교회)
- 일 시: 2014년 7월 8일(화) ~ 10(목)
- 장 소: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714)446-6200, (714)446-6207(Fax)
- 등록비: \$100(마감일 - 6월 25일)
- 참 조: 공항에서 총회장소까지 교통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항공 일정을 등록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발공항, 도착공항(SNA: 존웨이공항 or LAX), 항공편명, 도착시간,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총회후 출발공항(SNA 존웨이공항 or LAX) 및 출발시간 등을 은혜한인교회 김대섭행정목사(dskim143@gmail.com)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 총회
 대표회장 임형태목사/ 상임회장 김동욱목사/ 사무총장 황정일목사
 공동회장 한기홍목사(수석, 서부), 정인수목사(남부), 김종덕목사(동부), 유영일목사(중부)

문의처: 임형태목사(대표회장) ☎ 719.590.1520 김대섭행정목사(은혜한인교회) ☎ 714.336.4378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 열려 “우리 자녀는 우리 손으로”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에 참가한 감사한인교회 성가대

청소년 장학금 마련을 위한 자녀 사랑 찬양제가 남가주인청소년비전센터(KYVC) 주최로 15일 오후 6시에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서는 사회 김영대 목사(KYVC 이사장), 대표기도 허귀암 목사(중부교회 협회장), 설교 이영선 목사(밀알선교단 단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선 목사는 “사람이 사랑으로 열려”(시편139:13-15)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찬양제에서는 10팀이 참여, 20곡의 합창을 선사해 청중으로부터 많은 박수와 호응을 얻었으며, 참여 팀

으로는 모닝스타합창단, 브니엘여성합창단, 서울대학교 코랄, 송의합창단, 송실OB합창단, 연세합창단, 카이로스 미션 워십댄스 등 전문 합창단과 감사한인교회,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월셔연합감리교회 성가대가 공연했다. 또한 연합찬양단이 ‘살아계신 주’를 합창했다.

청소년비전센터는 지난 2007년 1월에 설립돼 지금까지 여러 교회와 학부모, 목회자들의 도움으로 청소년들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매주 한 번씩 남가주 지역의 세리토스 고등학교, 사이프러스고등학교, LA

고등학교 등 5개 공립학교에 크리스천 학생 클럽을 조직해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모닝스타합창단 등 문화사역도 하고 있다. 또 비행과 마약, 그리고 여러 사회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 ‘해피라이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고, ‘Dream & Job Fair’란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명사들을 학교로 초청해 강의를 열어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이라는 기반 위에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는 점이다. 5개 학교에 중부지역 교회 EM 사역자로 구성된 선교사를 파송해 한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만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본 사역이다.

이날 김영대 이사장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며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이웃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자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토마스 멩 기자

올림픽장로교회 복음 확장 위해 성전 이전 정장수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올림픽장로교회가 창립 22주년 및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올림픽장로교회(정장수 목사)가 창립 22주년 및 이전 감사예배를 15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새 성전은 LA 한인타운의 새언약학교(NCA) 안에 위치했다.

감사예배는 사회 정장수 목사, 기도 최성철 목사(함께하는교회), 설교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축사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김춘근 장로(JAMA 대표), 새언약학교 소개 제이슨 송 교장, 축도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좋은 소문난 교회”(살전1:2-8)란 제목으로 설교한 박희민 목사는 “올림픽장로교회가 새성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LA 커뮤니티에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 나갈지 바란다”고 밝혔다.

정장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22년 동안 지내온 것은 하

나님의 은혜라는 말 이외에는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올림픽장로교회를 섬겼던 분들, 그리고 섬기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박신욱 목사는 “그동안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은교회가 올림픽장로교회”라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를 위해 앞으로도 선교하는 교회로서 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올림픽장로교회는 기독교 사립학교인 새언약학교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LA 한인타운 내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전화번호) 213-387-1700
토마스 멩 기자

선교 위한 “남가주교회 친선 탁구대회” 개최돼



남가주교회 친선 탁구대회가 갈보리선교교회 주최로 열렸다.

선교기금 모금을 위한 ‘남가주교회 친선 탁구대회’가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주최로 7일(토) 오전 9시에 ‘배성환탁구교실’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약 1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교회와 단체들이 탁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화합과 친목을 나누며,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하는 시간이 됐다. 특별히 단체전을 조별 리그 및 토너먼트 형식

으로 진행하여 참가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과 마음껏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참가교회는 LA 사랑의교회, 파사데나장로교회, 로덴교회, 토렌스조은교회, 베델교회, 뉴마교회, 대흥장로교회, 리버사이드침례교회, 알바인노리교회, 한마음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새누리교회, 샘솟는교회, 충현선교교회

이며 참가단체는 배성환탁구교실, OC탁구협회, LA탁구협회, T.T Life 등이다.

주최측은 내년 2015년에도 6월 6일 토요일에 제11회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 교회 탁구팀을 초청하기로 했다. 대회에서 모여진 성금은 탄자니아 마쿱구 지역에 살고 있는 와타톨루 종족을 위해 사용된다. 토마스 멩 기자

남가주 밀알 사랑의 캠프 오는 26일부터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주최하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밀알 사랑의 캠프’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UC산타바바라에서 개최된다. 장애인 150명과 자원봉사자 250명, 스텝 50명이 참석하게 될 이 행사는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이 캠프는 밀알이 매주 토요일 여는 ‘사랑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밀알은 여름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밴쿠버, 남가주, 북가주 연합해 캠프를 열고 있다.

이 캠프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과 봉사자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미주 최대 규모의 장애인 행사다. 올해도 찬양과 댄스,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1인당 참가비는 180달러이며, 본인이나 가족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해 180달러를 후원할 수도 있다.

문의 : 남가주밀알선교단(657-400-9570)

김나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임(삼라한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복음화 대성회

남가주지역 교회연합

“변하여 새사람되리라” (삼상10:6)

주강사: 총재 이태희목사 / 전미주대표회장 한기홍목사 / 대회장 신승훈목사

성북교회 담임 은혜한인교회 담임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일시: 2014.6.27 ~ 29
● 27일(금) 7:30pm ● 28일(토) 6:00am, 7:30pm
● 29일(주일) 7:00pm

장소 LA주님의 영광교회

특별찬양: 나성 순복음교회 성가대
주님의 영광교회 성가대
은혜한인교회 성가대

주최: 남가주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신승훈 목사)
후원: 미주 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 교회협의회, 옐로스카운티 교회협의회, 미주 성서화운동본부

주소: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eb: http://gjcj.org
Tel: 714-392-9470/213-749-4500 Fax: 213-749-6700 E-Mail: info@gjcj.org

구약의 '기업 무를 자' 에서 교회의 사명을 찾다

미주 한인신학자들 '고엘 포럼' 개최해

미주의 한인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땅'을 주제로 6월 9일부터 4일간에 걸쳐 발제하고 토론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의 주제는 "고엘(기업 무를 자)"이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됐다. 한국의 세월호 사건 이후, 교회의 대사회적 사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 포럼은 성경 텍스트 그 자체에서 시작해 이를 신학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 사회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신학의 전 영역을 아우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 기업 무를 자, 토지 개혁과 경제 정의 등에 관심을 갖고 있던 고승희 목사, 민중기 목사, 백신종 선교사가 이를 주제로 신학적 담론을 이어가던 중,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이 협력하면서 이번 포럼이 기획됐다.

이 포럼을 계기로 이들은 미주한인복음주의신학회(Korean American Society of Evangelical Theology)를 창립하고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에서 목회와 선교에 관해 연구한다.

이 포럼에는 소위 미주 지역의 '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아름다운교회 고승희牧사는 LA 지역의 대표적 선교지도자로,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에 조예가 깊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미시시피주립대 경영학 박사를 마치고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그는 전략적인 면에서 영적 전쟁을 다루는 '땅' 전문가다. 충현신학교회 민중기 목사는 USC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던 중 풀러신학교로 진학해 기독교 윤리학으로 철학박사 학위

를 받았다. 민 목사는 이번 포럼에서 요셉 당시 이집트 정치 체제를 분석하며 윤리적 측면에서 경제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연결시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구약학자인 총신대 김지찬 교수, 미주장신대 김수정 교수, 신약학자인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 이필찬요한계시록연구소 이필찬 원장, 조직신학자인 미주장신대 조진성 교수가 발제하며 논의의 폭을 넓혔다. 또 현장 선교 전문가인 시드선교회의 백신종 선교사, 신진 구약학자인 정진명 목사도 참여했다.

첫날 포럼에서 가장 먼저 발제한 고승희 목사는 <땅에 대한 성경적 이해>란 발제에서 역대하 7:14에 나온 내용인 "겸손히 회개하면 땅이 고쳐질 것"이라는 구절부터 시작해 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며 동시에 타락으로 인한 저주의 공간"이라 말하며 "땅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토지 무르기의 개념은 땅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의 회복"이라 설명하며 "땅의 소유권은 곧 통치권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고 목사는 "이 땅의 풍요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통치 회복을 추구하자"고 요청했다.

고 목사의 발제를 이어받은 민중기 목사는 <요셉의 토지 제도와 희년법의 사회정의>에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나그네로서 그 땅을 경작한다"는 토지 개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선언하시고 인



이번 포럼에는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들이 참석해 '기업 무를 자, 고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고승희 목사



민중기 목사



정진명 목사



백신종 선교사

간에게는 경작할 권리만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배분된 토지를 팔지 못하게 하셨다. 당시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던 토지에 대한 공개념은 곧 약자를 위한 경제 정의이기도 했다. 특히 희년이나 토지 무르기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민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 요셉의 토지 개혁은 토지 공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셉이 대기근 때에 모든 농민들의 땅을 사들여 소작농으로 만들고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바치게 한 사건"을 들며 "요셉이 백성의 노예화와 토지 국유화를 주도한 것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나 당시 20% 세금은 매우 낮은 비율이다. 예를 들어, 기원전 750년 그리스는 소작농의 세금이 무려 6분의 5나 되었다. 20%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낮은 비율이란 것이다. 민 목사는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지배 구조의 변화다. 귀족들의 높은 세금으로 고통 받던 농민들이 토지 공개념 하에 생존권을 보장받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요셉의 토지 개혁은 토지 공개념에 있어서 희년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말하며 "인생의 실패로 인해 자유로운 신분과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누리라"고 설명했다.

정진명 목사의 세번째 강의로 넘어가면서 이 포럼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승희 목사가 땅의 의미와 중요성을, 민중기 목사가 구약의 토지 개념에서 회복의 정의를 찾아낸 후, 정진명 목사는 <모세 오경에 나타난 고엘 사상에 대한 연구> 발제에서 "땅을 무를 자, 몸을 무를 자, 피를 무를 자"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들며, 이를

곧 "이집트에서 땅 없이 사는 유대인

들을 무르는 하나님, 노예된 유대인을 무르는 하나님, 바로로부터 생명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관시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시는 분이심"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와 빈자를 찾아가 육적, 영적 빈곤을 보듬어주는 고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날부터는 논의가 좀더 심화됐다. 김지찬 교수는 도피성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조명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만을 지향하며 폭력을 양산해 왔다"고 비판한 뒤, "폭력의 악순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도피성처럼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종 선교사는 고엘의 관점에서 선교적 사명을 조명했다. 그는 "영원한 구속자이기에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며 "교회는 '열방의 기업 무를 자'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복 사역을 대신하는 기업 무를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명 총장은 고엘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을 연결시키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앙공동체로서 이웃과 사회와 인류를 복음으로 섬기는 고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모든 발제 후 마지막 날에는 시카고 헬로쉽교회의 김형균 목사가 총평을 했고 백신종 선교사가 질의응답의 시간을 진행했다.

김준형 기자



고엘 포럼에 참석한 신학자들. 이들은 이 포럼을 시작으로 미주한인복음주의신학회를 창립하고 다양한 연구에 나선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풀러턴지점: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1월) T.213.453.6624 (마리팅어빌리티)

100%홍삼농축액

100g 소피자가격	\$90	240g 소피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	-----------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100% 천연성분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인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성경의 종말은 지구 멸망 시나리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LA동부교역자협의회 주관 ‘요한계시록 바로 보기’ 연합집회 열려

성경적 종말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종말을 준비할 뿐 아니라 성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집회를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이필찬 목사를 초청해 개최했다. 이 집회는 13일과 14일 저녁 7시 30분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에서 열렸다. 이필찬 목사는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류스대학에서 신약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이필찬요한계시록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창조의 회복

이필찬 목사는 최근 미국 내 종말론에 관한 관심을 분석한 매튜 배렛 그로스(G. M. Beale)의 책 『마지막 신화』를 인용하며 둘째날 강의의 문을 열었다. 그는 2002년 타임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절반 이상(59%)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며 종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신자들은 종말을 끝이라 생각해 쾌락주의에 빠진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심판으로 여긴다. 올바르게 종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진행되는 구속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이 세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구속의 역사는 창조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아담에게 주신 에덴의 회복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으신 것이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이 말하는 지구 멸망 시나리오와 다르다며 종말에 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창조의 회복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초림은 회복의 성취, 재림은 회복의 완성이다. 새로운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 따라서 성경의 종말은 세속적 의미의 ‘끝’으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회복’을 가리킨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다니엘 시대에 주신 약속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꾀다.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온 나라의 박사들을 불러 모았다. 왕이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꿈을 해석하라고 명하자 모든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해 참수형을 당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꿈을 알아 맞춘다. 그 일 후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이 이 말이다. 결론적으로는 ‘이 열왕의 때에 하

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계2:44)고 말한다.”

“즉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이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대제국이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신다. 그 약속을 요한계시록이 이어 받았다.”

계시록의 예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달리 접근해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미 임했다. 요한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 계시록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날 사건을 예시해 놓은 책이 아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그는 “매튜 배렛 그로스의 책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들도 동요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서 있으면 그 어떤 이야기들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종교적 열광주의를 경계했다.

종말의 시대는 바로 지금

그는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격적으로 해석하며 종말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운데 임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앞 절인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말이 나온다. 즉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구약 선지서의 내용을 두 가지로 축약하면 ‘구원’과 ‘심판’이다. 그런데 이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다.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을 심판하셨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방 국가를 심판하셨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에는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는다.”

“종말은 초림 때 이미 시작됐으며 재림 때 완성된다. 따라서 지금은 종말의 시대이며 심판의 시대다. 우리는 이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로마서 1장에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롬1:24)라고 말하듯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교회도 심판의 대상인가?

그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교회도 심판의 대상이다. 질문을 던지며 7장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불고 있다.(1절) 성경에서 ‘4’는 우주적인 수를 의미한다. 9절의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도 결국 다 같은 뜻, 즉 모든 사람이란 뜻이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불고 있는 것은 바람을 놓기 위해서다.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고 말한다.(1~3절)”

“인은 자기 소유를 나타낸다. 노예를 사면 손목과 이마에 주인 이름을 이니셜로 새겼다. 14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14:1) 즉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며, 그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회 공동체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보호의 대상이다. 출애굽을 보면 이는 매우 명확하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명확히 구별된다.”

왜 십사만사천? 십사만사천은 누구?

그는 “계시록은 일차적으로 일곱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쓴 책이다. 일곱이라는 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종말’은 특정한 무리가 아닌 성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144,000명이라 했는가?”라고 물으며 이 수가 의미하는 바로 초점을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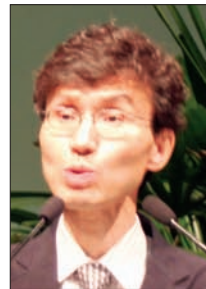
“144라고 하면 어떤 숫자가 떠오르는가? 12 곱하기 12가 떠오른다. 12란 숫자는 그리스도들에게는 익숙한 숫자다. 구약의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다. 그 수에 깊은 하나님의 경륜, 손길이 담겨 있다.”

“구약에서 ‘천’이라는 숫자의 용례를 찾아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 신5:10, 7:9),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이다(대상 16:15)’ 등에서 볼 수 있듯 ‘완전성’, ‘영원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십사만사천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의 모임 즉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가리킨다.”

십사만사천의 논의에 이어 9절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도 해석했다. 그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요한계시록 바로 보기’ 집회를 열었다.



이필찬 목사

는 이들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자로 이해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창13:16)는 구절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타락한 우주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다. 교회는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다.”

666을 베리칩으로 해석?

이어서 ‘666’(계13:16-18)을 해석하며 세간의 ‘베리칩’ 해석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했다.

“계시록이 서신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일곱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한다. 계시록의 집필 시기는 서기 90년, 100년 정도로 추정된다. 군대 간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쓴다고 가정해보자. 그 편지 속에는 어머니와 아들만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을 것이다. 제3자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들에게 그 배경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3자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면 편지의 내용이 왜곡될 것이다.”

666은 오늘날 물질주의로 해석 가능

“이는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각 철자마다 숫자가 부여됐고 당시 이름을 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게마트리아(Gematria)라 부르는데,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음역해 수로 표현하면 666이 된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68년에 죽었고 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90년이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공식적으로 핍박한 최초의 로마 황제라는 사실에 바탕이 있다.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며 황제 숭배를 요구한 로마 황제의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17절에 이 표(666)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부자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차지도 아니하고 더움지도 알지 못해 내겠다’고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경제 시스템은 ‘길드’라는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그 길드의 수장은 로마 제국 황제였다. 먹고 사는 문제를 황제가 해결해 준다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었고 로마 제국에 순응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13장의 짐승의 표 ‘666’을 통해 전달하고 한 바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라’는 것이며 ‘황제 숭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맨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1-10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회개하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가운데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생활을 힘쓰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것으로 허락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기중심에 모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늘 승리를 보장받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생활은 육신이 세상 쪽으로 원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치루기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기를 중심으로 소원을 삼고 힘쓰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일삼고 지옥 길을 재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날의 생활 속에서 죄 값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괴롭히고는 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절망,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또 죽음이란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괴롭히며, 죽어서도 그 죄 값이 남아서 유향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 시달리게 될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사는 목적과 방법도 바꾸기 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6:2-6에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잠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지니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해서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릇으로, 지체로 사용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49:8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했습니다. 본문 2절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한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3절과 같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직책을 얻어 영혼이 회개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며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전혀 희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무엇에든지 거리까지 않게 하고 전혀 약점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들은 맡겨진 양떼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들을 견디고 환란, 궁핍, 곤란, 매 맞고 망신당하며, 제대로 잠도 못자고 끼니를 찾아 먹지도 못하더라도 자신의 영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며 오래 참고 견디면서 육하고 혈통고 해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그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도우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맡겨진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잘못되면 야단도 치고 벌도 주고 또 연약한 심령은 호소하고 달래고 권면하면서 기어코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해 주려고 책임 목회의 사명에 자기 생애를 쏟아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때론 감정도 상하고 오기와 혈기가 솟아날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만일 "십일조를 온전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창고가 쌓아 둘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믿어지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넘치도록 아멘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목사가 돈 내도록 한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세속적 욕심을 채우는 목사와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23:1-2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흠은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흠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으면 하늘소망의 확실한 믿음으로 성

령에 이끌려서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거듭난 이유이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더니 실패했고, 또 다시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용서받아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위탁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려고 회개도 했고 거듭나기도 했다면 지금쯤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은 우리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몸소 치루시면서 죄인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낮추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맙고, 황송무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그 은혜 보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들이 밤낮 기회를 엿보며 울무를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람은 죽이고자 하나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생뿔뿔이 찢어 그 모든 사망의 울무를 벗어내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며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환란을 겪고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목사를 통하여 은혜받기는 영 틀려버린 것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12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세상은 마귀소굴이라서 더

욱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잘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더 큰 환란과 행패와 고통과 훼방을 당하게 마련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자가 잘못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양떼들도 그를 본보기 삼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하여 더욱 애쓰며 살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일도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깨끗한 믿음 지키는 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는 것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은 목사 자신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23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그분께 요긴한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시고 크게 쓰실 계획이 남아있는 양떼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난 척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며, 진실로 거듭났으면 이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위탁해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의 생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형통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만족한 삶을 영위토록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예수님 뜻대로 동행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오프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과정)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학사사 한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i@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관리집사님 모십니다



주인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길
관리집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세례교인, 미국 합법거주자, 운전면허 소지자
교회관리 유경험자

지원서류

이력서, 담임목사 추천서

서류 접수 마감

7월 20일 (당일 도착 :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인사위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www.kccroc.com 714.893.1652

센트럴 침례 신학대학원

LA 분교

한국부 학생 모집

www.cbts.edu

센트럴 침례 신학대학원(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은 1901년에 개교하였으며 1962년에 ATS인증을 받았고, 1979년에 HLC정회원이 된 전통있는 신학대학원이며 미셔널 처치 중심적인 신학훈련으로 한국 교회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학위과정 및 수업료 (1학기)

- 목회학박사(D.Min.) \$1,200 (학점당 \$200, 졸업학점 30)
- 목회신학석사(M.Div.) \$1,350 (학점당 \$150, 졸업학점 75)
- 디플로마 \$1,800 (학점당 \$150, 졸업학점 48,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 가능)

전과정 1-20 발급 (졸업 후 OPT 가능)

박사 3년, 석사 4년, 디플로마 2년

수업방식: 한국어 혹은 영어(통역제공)

- *4-5일 집중수업(주중 4-5일) *4-5주 집중수업(매주 하루)
- *4-5주 집중수업(매주 이틀 3-5시간) *15주 온라인 수업



문의처

서보천 목사: 310.951.3153 (LA 분교 담당)
본교 한국부 입학처: 913.667.5700 (ext. 120)
이메일: koreanstudies@cbts.edu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 913.667.5700 F. 913.371.8110
6601 Monticello Road., Shawnee, KS 66226

교구 심방사역 담당 여전도사님 모심

영혼을 잘 돌보고, 심방 사역에 헌신하신 분
기도 많이 하시고 겸손하신 분
희망연령 : 40대 후반-50대 초반이신 분

- * 제출하실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추천인 2분 연락처
- * 제출기한 : 6.30.2014
- * 서류 보내실 곳
▶우편 :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Attn : 기획실
▶이메일 : gcjc7494500@gmail.com



LA 다운타운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주님의 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http://xe.gcjc.org | Tel: 213-749-4500 | Fax: 213-749-6700

다마스쿠스 유다의 집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잘 알기 때문에, 야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 즉 '사울을 안수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야나니아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단지 명령하실 뿐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 9:15-16).

야나니아는 반대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답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쉽게 결심하지 못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야나니아는 고

민을 하다가도 결국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유다의 집을 방문합니다. 위대한 일은 순종 가운데 나타납니다. 야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안수할 때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울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즉시로 믿음의 표징인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집니다. 성령 충만을 얻은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여 주변을 놀라게 합니다.

유다의 집은 믿음의 지도자 야나니아 방문한 집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안수한 집입니다. 그가 큰 지도자 바울을 세운 집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세우고 큰 지도자를 배출하는 이 시대의 유다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관이 지치고 힘든 선교사님을 회복시키고 재충전하여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 파송하는 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핍박의 시대에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쁘게 쓰시는 이 시대의 야나니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문맥이 실종된 사회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신학교에서 성경해석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는 어떤 말씀을 해석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씩 주신 본래의 의미대로 바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 자체의 뜻은 물론 그 말이 사용된 문맥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의 조화를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당연한 원칙이다. 모든 말은 대화 상대방과의 상황을 전제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말도 전혀 다른 의미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너 잘났다"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진짜로 잘났다는 말일 수도 있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잘난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상황과 배경 즉 문맥을 무시한 해석은 무책임한 해석이고 결코 바르지 못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초년생이 아닌 설교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무리하고 자의적인 성경해석을 하는 경우를 본다. 특별히 이단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성경해석이 이렇게 문맥과 성경 전체의 균형을 무시한

과 대상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말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일반화 돼 버린 듯 하다.

개인 간에 이렇게 문맥을 무시한 채 전달되는 말들을 통해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언론기관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학교에서 교육 받으면서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것 중의 하나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전할 때는 그 말이 인용된 것이라는 사실과 그 인용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절차들이 많이 불편하고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이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니다 싶다.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진지하게 경청하고 혹 그것을 전할 때는 문맥을 빠뜨리지 말고 왜곡됨이 없이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한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사립학교

된 이론론을 적용하여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물론 잘못을 따지자면 교회에서 담배를 피운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학생을 쫓아낸 것도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들을 찾아 다니셨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셨다. 예수님은 흡연자도 사랑하신다.

청소년을 잘 지도하기 위해선 인내, 사랑, 연구, 노력, 시실, 그리고 때로는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제아든지 우등생이든지 상관없이 학생들은 많은 질문과 불만, 그리고 그릇된 생각과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철이 덜 든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단번에 최선을 요구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용서하고 가르쳐 줄 사람을 찾고 있다. 물론 이런 교육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 앞서 대화를 나눈 학생들은 하나같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했으며 부모의 잔소리와 폭력, 비하와 방치 등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되찾으라고 조언했지만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담배를 피운다고 지옥까지 않는다. 한번 실수했다고 인생이 다 망가지지 않는다. 소망을 갖고 노력한다면 결코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소망의 씨앗을 심어 주어야만 한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 보자.

담배를 피운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교회에서(교회 안에서든 담장 밖에서든) 담배를 피우는 것은 교인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다.

대화를 마칠 무렵, 한 학생이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왜 교회에선 자신같은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판단만 하느냐고 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포인트여서 그 학생에게 필자의 생각을 전했다. 교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흡있는 사람들로 꽉 차있고, 그래서 그런지 문제도 많은 곳이라고 말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사람 위주라 다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니 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담배를 피우면 자동 지옥행인가? 반대로 교회에 다니다고 다 천국행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릇

수년 전, 주일 오후 노방전도에 참여했다. 벨리 지역의 한 한인마켓 앞에서 말씀 태우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4명의 십대 소년들이 뭘 좀 물어보고 싶다고 하며 말을 건네왔다. 그 학생들은 졸업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다짜고짜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라고 물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나"고 물어봤더니 "방금 교회 전도사님이 자신들을 교회에서 쫓아냈기에 그런다"고 했다.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학생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학생들은 교회 담장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 예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담임목사에게 들켰고, 곧 교육전도사가 뛰어나와서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왜 교회에서 담배를 피웠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교회 담 "밖"에서 담배를 피웠지 교회 "안"에서 피운 것이 아니라고 우기기도 했다.

이런 대화를 처음 나누는 것이 아니기에 필자는 담배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았다. 그들은 담배를 즐긴다고 고백했고,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했다.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가 물어봤더니 한 학생은 진학 문제, 또 한 학생은 마약을 팔다 걸려 집행유예 과정을 따르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 또 한 학생은 여러 번 자살미수했던 것 등 매우 심각한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약 20분간 그들과 대화를 나눴고,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213-500-4471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병을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3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6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집안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걷는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버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6달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취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취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취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팻(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안하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9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되고 의욕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구찮아지게 되게 때문입니다. 맨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는 있는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3절 중에 "그들의 날이 일백이십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것이 아니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사는법에 관심을 가져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왕이 드시는 음식을 드시고 계신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위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라고 하니까, 모세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생각납니다. 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에스겔에서의 여호와와 삼마라는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성전입니다. 이 성전들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것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성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즉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혜택 중 하나는 요한계

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곳에서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원한 삶을 살수 있다고 22장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제 2의 삶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삶에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유, 석류, 포도, 꿀, 무화과등이 나옵니다. 그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였고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 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등으로 황폐 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섭취가 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무슨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가 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흥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954.985.3928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캐나다 대학, 동성애 반대로 인가 취소될 뻔

캐나다의 한 법학대학이 동성애를 금지한 정책 때문에 정식 법학 교육 기관으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뜻밖의 반대에 부딪혔다.

기독교 종합대학인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Trinity Western University)는 학칙에 의거해 학생들에게 “한 남성과 한 여성 간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그 어떤 성적인 접촉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절제할 것”을 의무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한 학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이 학교 법학대학이 정식 법학 학위 발급 기관으로 인가받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법학협회(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는 동성애를 금지한 학칙을 문제 삼아 이 대학에 인가를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

협회는 학교가 교직원과 학생들의 동성애에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지하고 있다며, “만약 교직원과 학생 중 누군가에게 법학대학과 배우자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그는 배우자를 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차별적인 정책이다”며, “자신의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일간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에 따르면, 이번 인가 과정에서 협회는 일종의 자문단 역할을 할 뿐이며, 실질적인 심사단의 경우 찬성 3210표, 반대 968표의 비율

로 이 대학의 인가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지 동성애를 금지한 학칙 때문에 인가를 거부당했다는 사실은 법조계에 널리 퍼진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 보여 준다는 것이 학교측의 입장이다.

밥 쿤(Bob Kuhn) 총장은 성명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와 관련한 결정들이 대중적인 견해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 졸업생들의 신앙이 이들이 법관으로서 일하기 위한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이들의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다”라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김신애 사모, 퇴원과 의족 착용 앞두고 있어

김신애 사모가 퇴원을 앞두고 있다.

임신 4개월에 원인 모를 바이러스 감염으로 패혈증이 생겨 생사를 오가다, 손과 발을 절단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온 김신애 사모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집으로 돌아가 재활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퇴원을 앞두고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침대와 휠체어를 오가는 훈련과 자동차와 휠체어를 오가는 훈련을 하

고 있으며, 퇴원 이후에는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곧 의족을 착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있다.

14일(토), 밝은 모습으로 기자를 맞이한 백성인 전도사와 김신애 사모 부부는 한인들의 기도와 후원에 거듭 감사사를 나타냈다.

그 동안 김신애 사모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온 강제철 전도사는 “병원에 서 초차 김신애 사모 케이스를 ‘기적’

이라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한다. 처음에 응급실에 왔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심장마비가 왔을 때, 40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심장마사지를 해서 살려냈지만 뇌 손상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대화를 다 이해하고,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이야기할 정도이다. 앞으로 재활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현희 기자

기독교인 박해, 초대교회 때보다 더 심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황은 최근 스페인의 ‘라 반가르디아(La Vanguardia)’와 가진 인터뷰에

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최근의 박해는 교회의 초기 몇 세기 당시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미국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퓨포럼(Pew Forum)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종교 그룹은 기독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퓨 포럼이 2006년에서 2012년 간 진행한 조사 결과 기독교 박해는 세계 151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파키스탄 기독교 여성 강제 개종 매년 100-700명

한 파키스탄 무슬림 NGO는 “주로 12-25세 사이의 크리스천 여성 100-700명이 매년 납치, 이슬람으로의 개종, 강제결혼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대와 평화를 위한 운동(이하 MSP)’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크리스천 공동체의 강제 결혼과 강제 개종”이 한 섹션으로 분류되었다. 납치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지만, 가해자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납치된 크리스천 여성을 대신하여 다른 경찰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그녀의 결혼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므로 그녀의 부모는 지금 불법적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 1억8,500만명의 파키스탄 인구 중에서 95%가 무슬림(주로 수니파)

이며 그 중 크리스천은 2% 정도다. MSP는 하자라(Hazara) 공동체를 대표하는데,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의 투르크 인종 집단이며 시아파 무슬림으로 추측된다. 하자라는 지난 20년간 종교간 살인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잃었다. MSP는 폭력과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들이, 크리스천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치된 크리스천 여성들이 직면하는 것은 “성폭력, 강간, 매춘, 인신매매, 또 다른 가정폭력”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대한 생명의 위협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슬람 수니파 테러단체인 ISIS(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만행 이후, 이라크의 제2의 도시 모술(Mosul)에서 대규모 탈출이 진행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180만 명의 인구 중 15만 명이 도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와치모니터(WWM)는 크리스천 약 1,000 가정이 좀 더 안전한 지역을 찾아 떠난 것을 확인했다.

ISIS는 최근 선거 후 정부를 개편하려는 누리 말리키(Nouri Maliki) 총리의 공백 가운데,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극하고 있다.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를 전복시키고, 중동 지역에 이슬람 수니파 국가를 세우려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술에 있는 니네베(Nineveh) 지방을 몇 달째 비공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비상사태를 선언했

성경 문맹률

미국 기독교 토대 위협

신약학 교수 케네스 버딩(Kenneth Berding)은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고 느꼈으나, 오늘날 성경에 관한 무지는 위기 수준이라고 말한다.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Talbot School of Theology)의 버딩 교수는 “모든 조사에서 미국 내 성경에 관한 지식은 항상 저조했다. 15년 동안 매해 대학 신입생을 가르친 경험에 따르면 15년 전에도 수업을 시작할 무렵 학생들이 성경을 거의 알지 못했으나, 오늘날 학생들은 그보다도 더 무지하다”고 크리스천 포스트에 말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몰라

“크리스천은 ‘책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성경에 관해 말하고 성경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2014년 바나 그룹(Barna Group)과 미국성서협회(American Bible Society)가 발표한 성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다수(81%)가 자신이 매우, 적당히 혹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경의 첫번째 책 이름을 아는 비율은 43%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학생은 신약에 나오는 사울과 구약에 나오는 사울이 다른 인물임을 몰랐다. 또 한 학생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눈(Nun)’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인지 모른 채, 가톨릭의 수녀(a nun)를 가르킨다고 이해했다.

성경 통해 하나님의 뜻 묻는 전통에서 멀어져

버딩은 성경 지식이 감소하는 이유를 미국인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에 찾는다. 그는 “많은 미국인들이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여기지 않으며 성경이 자신의 삶

에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을 일반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여길지도 모르나,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며, 따라서 우리 행동이 그 책에 결부된다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며 애석해 했다.

2014년 성경 조사에서, 미국인 대부분이 성경을 갖고 있으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 사람은 3분의 1을 약간 웃돌았다(37%). 4분의 1 이상은 성경을 전혀 안 읽었다.

버딩은 성경이 크리스천의 삶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도움이 필요한 죄인들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측면에 걸린 미국인

버딩은 야고보서를 인용하며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4:17)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책 중 가장 소중한 책,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읽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는 이처럼 성경을 가볍게 여기게 된 원인에 대해 현대인들이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 추측하며 이 외에도 자기 의존, 소셜네트워크, 문자, 오락거리의 발달에 따른 주의산만, 부적절한 자부심, 분주함을 꼽았다.

버딩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 시간을 쏟기 위해 애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에 우리는 어느 정도 최면이 걸려 있다”며 “미국 내 크리스천 운동이 강력해 보여도, 성경을 향한 전념과 헌신이 결여되었기에 그 기초가 와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으나 다음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 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주디 한 기자

으며, 총리는 이라크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국제기구에 이라크의 평화 유지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이웃 국가들에게는 국경 강화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이라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현지 언론은 무장세력들이 모술대학의 여학생 70명과 터키 트럭 운전

사 28명을 인질로 잡았다고 한다. 또한 교도소에 갇혀 있던 약 300명의 죄수들이 풀려났다고 한다. 한 모술 시민은 “현재 집에는 음식이나 전기, 물이 하나도 없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도시에는 무작위로 총을 쏘는 저격수들이 있다”고 전했다.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L.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4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

- 2014. 8.18~8.29 - 이스라엘 단기순교(10박11일) \$1,999
- 2014. 9.1~9.6 - 한국 선교지(순교지) 성지순례(5박6일) \$1,799
- 2014. 11.3~11.12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3~11.14 -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11박12일) \$2,899
- 2014. 11.10~11.17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4. 11.10~11.19 - 터키, 그리스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10~11.22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약가격은, 5월~7월 등록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수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남침례회 “동성애 반대 입장에 변함 없다”

연차총회 중 진행된 토론회 패널들 입 모아 강조



남침례신학대학원의 알버트 몰러 총장

미국 남침례회가 동성결혼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와 관련된 논란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연차총회의 패널 토론회에 참석한 남침례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알버트 몰러(Dr. R. Albert Mohler Jr.) 총장은 크리스천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침례회는 일종의 확증으로써 매우 분명하게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 2000년 교단법이 개정되면서 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세대 속에서, 남침례회가 동성애 이슈에 대해 모호하거나 혼란스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세대에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말했다.

Acts 29 미니스트리 대표인 매트 찬들러

강혜진 기자

“하나님은 부러진 나무도 열매 맺게 하셔”

“그의 영광 보려면 기꺼이 고난 당해야”

릭 워렌 목사, 자살한 아들 회고하면서 목회자들 위로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

릭 워렌 목사가 지난해 자신의 막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신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 부러진 나무도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다.

남침례회 목회자인 그는 이번 총회에 앞서 열린 전국 목회자 회의에서 설교하면서 작년 4월 가족의 곁을 떠난 아들 매튜 워렌을 추모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매튜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곤 했다”고 말했다.

매튜는 선천적인 정신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렌 목사는 또한 “매튜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 했다”며, “그가 살아 있었다면 좋은 상담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렌 목사는 “매튜가 죽은 후에 나는 3만여 통의 위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들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었지만 내게는 최고의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과 같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편지들은 매튜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편지들을 읽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 부러진 나무라도

(Matt Chandler)는 “동성애에 대한 남침례회의 어떠한 논의들도 교단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80년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투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다음이 동성애 문제라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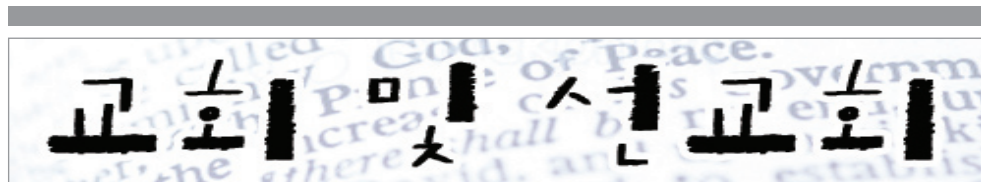
이날 토론회는 몰러 총장, 찬들러 대표 이외에, 한국에도 <래디컬>이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브룩힐스교회 담임 데이비드 플랫 목사, 라이프웨이 CEO이자 대표인 톰 레이니 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남침례회가 당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동성애적 충동이 있는 신자들을 대할 때, 성윤리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사랑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 목사는 동성애적 유혹과 싸우고 있는 교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한 공간과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침례회 교인들 가운데 10대들과 청년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서의 내용과 한 교회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문제 등도 다뤘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제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la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 오전 11:0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거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박승부 장로 1기 2기, 3기, 4기 수료생 배움, 현재 2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미디어칼, 임산부 미디어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예향선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mail: isaacde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의모습, 성경적코이노니아, 만민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콜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미(Maturing), 맞선대(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오전 6:00 (토)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무고, 이민2세를책망하며, 이민2세대정착을위해 선교와영양을중심하는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1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침례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u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 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 예배 오전 11:45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예배(EM)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나눔 장로교회**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침례회 오후 7:45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애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최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 감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밸리채플)
 목요일성경침례회 오후 7:45 (다우너 채플)
 금요일성경침례회 오후 7:45 (밸리채플)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파사데나장로교회**
 스베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당)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은혜와평강교회**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뉴욕교협 건물 130만불에 매각



뉴욕교협이 임신행위위원회를 열고 교협 건물 매각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새 건물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뉴욕교협은 유니온 스트리트에 위치한 교협 건물을 최종 130만 불에 매각했으며 청소년센터 건물 매각 비용을 포함해 총 150만 불의 새 건물 구입 비용이 마련됐다.

뉴욕교협은 9일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에서 열린 제3차 임신행위위원회에서 6월 5일 뉴욕교협 건물이 클로징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현재 김승희 회장을 비롯한 교협건물이전추진위원장 김용걸 신부 등이 새로운 건물 후보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교협 보고에 따르면, 유니온 스트리트 뉴욕교협 회관은 최종 130만불에 매각됐고, 이중 변호사 및 브로커 비용, 대출 회사 견적 비용, 새 건물 이전까지 6개월 렌트비 5천불 등 총 99,350불을 제외하고 1,200,650불이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남았다. 이에 청소년센터 매각 금액 35만불까지 합쳐 총 150만불의 새 회관 이

전 기금이 조성됐다. 현재 뉴욕교협 사무실은 새로운 건물을 찾기까지 유니온 스트리트에 위치한 구 건물을 렌트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이날 임신행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올해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헌금은 24개 지역에서 19,467불이 헌금됐으며, 체육대회는 7,100불 수입에 3,851불 지출, 성지순례는 172,350불 수입, 172,350불 지출이었다. 필리핀 이재민 돕기 헌금은 총 28,991불이 모금돼 16명의 현지 선교사에게 모두 전달됐다.

앞서 열린 예배는 조원태 목사의 인도로 최현준 목사 대표기도, 김수태 목사 설교, 송일권 목사 광고, 송병기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수태 목사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나 교협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능력과 인격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각오로 임할 때 온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뉴저지목사회, 회장 박찬순-부회장 양춘길 목사



뉴저지목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박찬순 목사를 선출했다.

뉴저지한인목사회가 9일 임마누엘성결교회(담임 박찬순 목사)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박찬순 목사, 신임 부회장에 양춘길 목사를 선출했다.

2005년-2006년 뉴저지교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찬순 목사는 뉴저지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는 인물이다. 박찬순 목사는 현재 뉴저지목사회 산하에 구성된 축구단과 남성목사합창단 등을 통해 뉴저지 목회자들 간의 친목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1982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85년 도미하여 88년 뉴저지임마누엘교회를 개척하였다. 서울신학대학교 사카고 노년배티스트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기독교미주성결교

회 중부지방회장, 서기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는 부회장에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가 선출된 점도 주목된다. 대형교회들의 연합 활동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필그림교회는 뉴저지교협 등의 교회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형교회다. 양춘길 목사의 활동이 앞으로 큰 교회들의 연합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정기총회 앞서 열린 예배는 전 총무 권형덕 목사의 사회로, 이의철 목사 기도, 육민호 목사 성경봉독, 뉴저지목사회 창단 특송, 박찬순 목사 설교, 양부환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대원 기자

남미워십 LAMP 김민주 선교사 찬양콘서트



‘주께 가까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등의 주옥 같은 찬양을 선보인 남미워십 LAMP 1, 2집 프로듀서를 맡았던 김민주 선교사 찬양콘서트가 21일(토) 오후 6시, 세계로교회(담임 이재위 목사)에서 열린다.

를 찾은 김민주 선교사의 첫번째 공식 콘서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감미롭고 깊은 찬양과 함께 은혜로운 간증이 더해질 것이다.

Knowing God Ministry에서 주최하는 이번 찬양콘서트는 학업차 애틀랜타

김 앤더슨 기자

고향선교회 주최, 이민복 선교사 초청 6.25 통일 구국 성회

서북미 지역에서 남북 통일 위한 강연회 개최



대북 풍선 단장 이민복 선교사

탈북자 선교와 북한 복음화에 앞장서는 고향선교회(회장 최창호 목사)는 오는 6월 20일(금)부터 7월 20일(주일)까지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선교사(55)를 강사로 서북미 각 지역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특히 6월 24일(화) 오후 7시에는 웨드럴웨이 코엠TV 방송국에서 6.25 연합성회로 열린다.

이민복 선교사는 평양 김책공대를 나와 북한과학원에서 활동하던 과학자였지만 공산정권의 허상을 깨닫고 1991년 탈북했다. 2001년부터는 수령우상화와 폐쇄정책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공산주의의 진실을 알리고자 전단지외 구조품을 풍선에 달아 북으로 보내고 있다.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보다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대북전단지를 더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민복 선교사가 북한에 보내는 풍선에는 북한에 대한 진실이 적힌 전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풍선은 의약품과 식량, 라디오, 1달러 지폐, 중국 돈, 북한 돈 등을 매달고 북한 전역으로 날아간다. 이 선교사는 요즘 평양 고위층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와 영상이 담긴 DVD와 USB를 보내기도 한다. 또 풍선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매달아 낙하 위치를 확인하고, 타이머를 이용해 낙하지점을 설정하는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다. 현재 풍선은 북한 전역과 함경도는 물론 백두산 인근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민복 선교사가 북한 보낸 전단지는 3억 장이 넘는다. 풍선 한 개에 3만 장의 전단지를 담을 수 있다고 계산할 때 1만 개의 풍선을 날렸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는 그 많은 풍선을 북한에 보낼 수 있었을까? 해답은 풍선의 비용절감에 있다. 과거에는 풍선 하나를 보낼 때 소요됐던 비용이 400만원이었지만 이민복 선교사는 연구를 통해 풍선 한 개당 단가를 12만원으로 낮췄다. 그리고 1천300원짜리 타이머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민복 선교사는 “풍선보내기 운동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진정한 인권 활동이자, 외부 정보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필요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직시하고 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북한에 풍선을 날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유를 전하기 위함이다.

탈북자 선교사 윤요한 목사는 “북한 사회는 수령 숭배사상, 혁명주의, 선군주의 세 가지로 버티고 있고, 이 세 가지로 북한 주민들을 육체적, 정신적 노예로 만들고 있다”며 “빛이 비추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듯이,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진실을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기에 이번 강연회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초대말을 전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한인들에게 친숙한 심슨우드트리트센터 문닫기로 결정

매년 증가하는 재정손실 해결하고자 노력, 뚜렷한 해답 없어



심슨우드트리트센터에서 열렸던 미 한인연합감리교 목회자 컨퍼런스 모습

귀넷데일리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합감리교 북조지아연회에서 피치트리 코너스에 위치한 심슨우드트리트센터 시설을 재정적인 이유로 닫기로 결정했다.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도 종종 찾던 심슨우드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이를 사랑했던 감리교인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에텐스 클래식 센터에서 열린 연회 모임에서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투표를 통해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회계 담당인 키스 카스 씨는 2012년 156,784불, 2013년 141,254불, 그리고 2014년 4월 30일 현재 145,701불의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5월, 심슨우드는 벌써 33,000불의 손해를 본 상태라고 덧붙인 카스 씨는 “우리의 현금 상황은 지난 2주 동안 훨씬 더 쪼들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두 달 동안 운영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했다.

카스 씨는 “이 기관(심슨우드)은 여전히 예상 가능한 채무 원리금 상환과 시설 유지와 다른 비용은 감당해 갈 것이지만 이사회에서는 브로커와 함께 다른 대안이나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고 했다. 감리교 연회에서 마이클 왓슨 감독은 “이 시설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해, 범연은 북조지아연회에 약 40년 전 루디 심슨의 기부로 세워진 심슨우드트리트센터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팔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들이 재정 문제를 돕고자 나섰지만, 지난 4월 치안판사 마크 루이스는 이웃들은 사적인 재산에 개입할 권리가 없음을 판결했다.

매트 리브스 연회 변호사는, 연회 측은 수양관이 위치한 귀넷 카운티에 공원으로 시설을 팔고자 시도했다고 밝혔다. 귀넷 데일리포스트는 귀넷 카운티 대변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이빌 데이빗슨 연회 대변인은 운영비용의 높은 손실로 인해 사적으로 사용될 재정이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나중에 보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소집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심슨우드트리트센터는 소속 연회의 전체 재정의 2~3%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7에이커 자연 속에 세워진 22,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심슨우드트리트센터는 행사를 위한 장소로 인기가 많다. 한인연합감리교 북조지아연회 역시 교회에서는 매년 여름 이곳에서 선교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단과 한인 교회들의 크고 작은 수련회 장소로, 에클레시아 영성수련회 등으로 사용돼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곳이다.

김 신디 기자

O.C./앨버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름성경찬양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덕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1:00
3부(찬양)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암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T. (949) 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제물)

EM예배 오전 10:00 (FC제물)
오전 12:30 (분당)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언예배 (수) 오후 7:30
성령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앨버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해.님.나.를.이.루는.실.행.하.는.사.람.을.기.뵙.는.주.님의.부.로.심.을.알.고.인.도.는.선.교.선.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성경찬양회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성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석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주얼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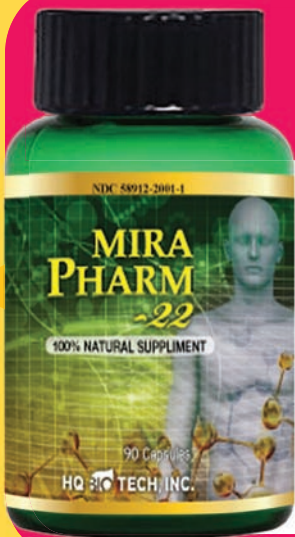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허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와 같이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유기물질로써 미FDA 등록 연구소에서 행해진 AOAC 976. 26GC, EPA 200.7, CDFA 1991 PUB, pH테스트, 유기염소의 살충제 & PCBs (안전테스트), 17 중금속, 영양 함유물과 라벨링에 근거하여 식품으로 안전함을 확인 증명 받았으며, 그 이후 2013년 8월 1 일에 미FDA에 일반의약품[NDC (OTC DRUG)]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품 제조허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적의 약(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90캡슐 / 한 달분 / 한 병
Made in USA

미라팜-22의 일반의약품 등록 합법성은 미국 FDA의 아래
사이트를 가셔서 상표명이나 NDC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ndc/dsp_searchresult.cfm



미국 FDA NDC 일반의약품 등록 인증서
(FDA NDC REGISTRATION CERTIFICATE)
<아시아 본부 발행>



기능성 식품 안정성 테스트 확인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IRMATION
FOR TEST PARAMETERS)



FDA 확인해보세요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로 검색

22세기형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UNAPPROVED DRUG OTHER란 Marketing Category Name은 승인 안 된 의약품이란 뜻이 아니라 FDA에 이미 등재된 약제
목록에는 없는 신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다른(OTHER) 의약품이란 의미이며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져 FDA에 등록된 의약품입니다.

가정의 달 효도 세일!

미라팜 3병 구입시
HQ구연산 프로모션 중 1가지 선택
소비자 가격 \$400

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

프로모션 B
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
\$380 \$100

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유기물질이면서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된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로 등록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 NDC(OTC Drug)로 인증 등록된 첨단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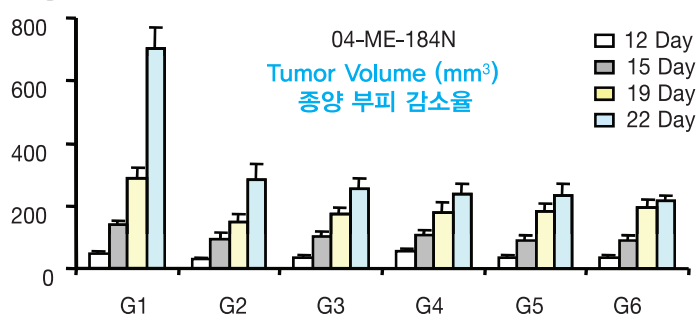
복용 후 5일 - 11/5/2013 복용 후 25일 - 11/25/2013 복용 후 77일 - 1/16/2014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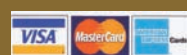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의 FDA 인가된 비임상 테스트를 거쳐 나온 것이며 자세한 데이터(64페이지)를 원하시면 본사를 방문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제6회 장로교의 날 발대식 진행 한교단 다체제 창립의 기폭제 기대

이종운 목사, “장로교회가 하나돼야 통일도 가능”



2014 '장로교의 날' 발대식 및 준비위원회 회의 이후 참여한 회원 교단 목회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2014 '장로교의 날' 발대식 및 준비위원회 회의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 장로교의 날 행사는 일곱 교단이 동참하면 창립하기로 한 한교단 다체제 창립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7월 10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올림픽홀에서 '빛과 소금의 장로교회'라는 주제로 25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참여 교단은 예장 통합, 합동, 고신, 대신, 백석, 호헌1, 호헌2, 합신, 합동동신, 합동북부, 합동중앙, 합동개혁, 개혁총연, 고려개혁, 합동복음, 합동총회, 성경, 개혁선교, 보수, 개혁정통, 합동선목, 한영, 개혁국제, 피어선과 가장 총회이다.

이날 '장로교의 날' 계획을 설명한 김명일 목사(진행총무, 한장총 사무총장)는 “4500~5000명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50여 교회에서 연합찬양대단 1500명을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 부흥사협의회에서 60명이 성찬위원을 맡을 것이라며 부흥사협의회 전국 네트워크에서도 장로교의 날 행사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은 서울시장이 방문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로교의 날' 행사는 기수단 입장과 개회식이 1부, 장로교 전통에 따른 예배가 2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비전 제시 순서가 3부로 진행된다.

예배 설교는 장종현 목사가 맡으며 설교 이후에는 '건강한 장로교회를 위해 - 한교단 다체제를 위해', '국가와 민족, 통일을 위해', '장로교 신학대학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배 후반부는 성찬식도 진행한다.

한교단 다체제 추진 로드맵을 설명한 이종운 목사(한장총 제27대 대표회장, 서울교회 원로)는 먼저 “장로교의 날이 창설된 것이 6주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다”며 “그때 장로교 정체성회복위원회를 만들어서 250개 이상의 교단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의 장로교회가 그 이듬해에는 한국장로교신학회를 만들어 27개 신학교 교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세미나 하고 신학저널 출판했다”고 했다.

그는 “2009년도에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가 탄생했고 그때 제안한 것이 장로교의 날이다”라며 “2009년도에 제1회 장로교의 날이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해서 제정됐고 그때 주제가 '연합과 일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소개하며 한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얼마 전 한장총 목사장로기도회 시간에 격려사를 하라고 해서 갔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고려와 총회장을 하셨던 윤희구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한가지를 물어봤다”고 했다.

내용인즉 “기장 교인이 고려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기장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였다.

이 목사는 “윤 목사님은 ‘취약’이라고 답했다. 그때 바로 그 옆에 기장 총회장이 앉아 있어서 다시 물어봤더니 그도 ‘나도 주겠습니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칼빈이 가르친대로 하면 이미 한 교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갈라질 이유가 없다. 뭐가 달라서 갈라지는가?”라고 물으며 “하나

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2010년도 한교단 다체제 운동이 시작됐다”며 “작년에는 헌법초안위원회가 생겨 헌법초안을 만들었고, 여러 교단에 넘겨드려서 세 교단이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일곱 교단이 가입을 할 때 창립총회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내년이 될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저 교단과는 도무지 신학적으로 안된다 해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바른 신학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며 “성경적으로 고린도교회에서 한교단 다체제가 이미 이뤄졌고, 니케아 공의회 등을 보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했다”고 했다.

덧붙여 “칼빈이 말한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며 “예배와 성례전이 같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 일이 돼야 남북통일이 가능하다. 이미 통일이 가까이 왔다”며 “북한이 붕괴 직전인데 통일이 되려면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장로교가 70% 이상인데 장로교가 하나되면 감리교와 하나되기는 쉽다”며 “연합을 이뤄 통일의 기초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끼리 싸우면서 무슨 통일을 말하고 나라의 동질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일에 앞장서고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회예배, 부회장 및 상임위원장 위촉식, 준비위원회 및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오상아 기자

감리교 개혁 추진위 통해 분명한 대안 제시할 것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감리교 본부에서 열린 제30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총실위) 10차 회의에서) 이번 회기에 임시입법회의는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 전 감독회장은 “그날 총실위에서 결의한대로 개혁 추진위를 통해서 개혁을 위한 보다 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며 여러분들의 염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 총실위 회의에서 임시입법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됐던 것에 대해 소감을 밝히며 “지난 11월에 있었던 임시입법회의를 없던 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모든 총실위 위원들에게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미묘한 입장의 차이 속에서 이번 회기에 임시입법회의는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논란이 존재하는 지난 입법안을 강행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인 반면, 지난 임시입법회의를 무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낸다면 지난 회의에 들어간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감독회장은 특히 개혁 추진위를 통해 감리교 개혁을 위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 감독회장은 “취임 11개월만에 얻어낸 과제이지만, 이제는 남은 2년 4개월의 임기를 새로운 감리교회를 위해 전적인 헌신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동윤 기자

“문창극 후보 발언 역사왜곡이라 볼 수 없다”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림나비)이 최근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과 관련, 17일 논평을 발표했다.

살림나비는 “문창극 총리 후보의 발언은 역사왜곡이라 볼 수 없다”며 “문 후보 강연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그의 강연에 대한 언론들이나 각계 사람들의 비판이 상당부분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족이 나타하다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부패 권리의 수탈에 의한 것이었다는 뜻”이라며 “이런 본래적인 의도가 분명한 데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를 민족성에 대한 폄훼로 몰고 간 것은 발언의 문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왜곡인 것으로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그의 역사인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의 역사인식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셔서 민족의 오랜 습성을 고치게 하시고, 일제강점과 남북분단과 6.25전쟁과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연단하셔서 앞으로 도래할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려

고 하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민족수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앙의 표현”이라면서 “그의 발언이 비신자들에게는 일제강점과 남북의 분단 상황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긍정되어야 할 입장”이라고도 평가했다.

반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문창극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문 후보의 비정상적인 역사관, 종교관으로 인해 국민들 간 분열을 우려할 정도다”라고 밝힌 뒤, 문 후보의 교회 강연이 아닌, 2007년 당시 중앙일보에 기재한 아픈 피랍 사태 관련 칼럼을 문제삼았다.

종자원은 “당시 이 피랍사건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일부 교회의 무모한 해외 선교활동에 대해 교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거셌고, 당시 외교부 등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지역으로의 여행조차 자제 내지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인질 고동은 성장통이다’는 문 후보의 글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고, 칼럼을 읽다 보면 특정종교 입장에서 신앙간증을 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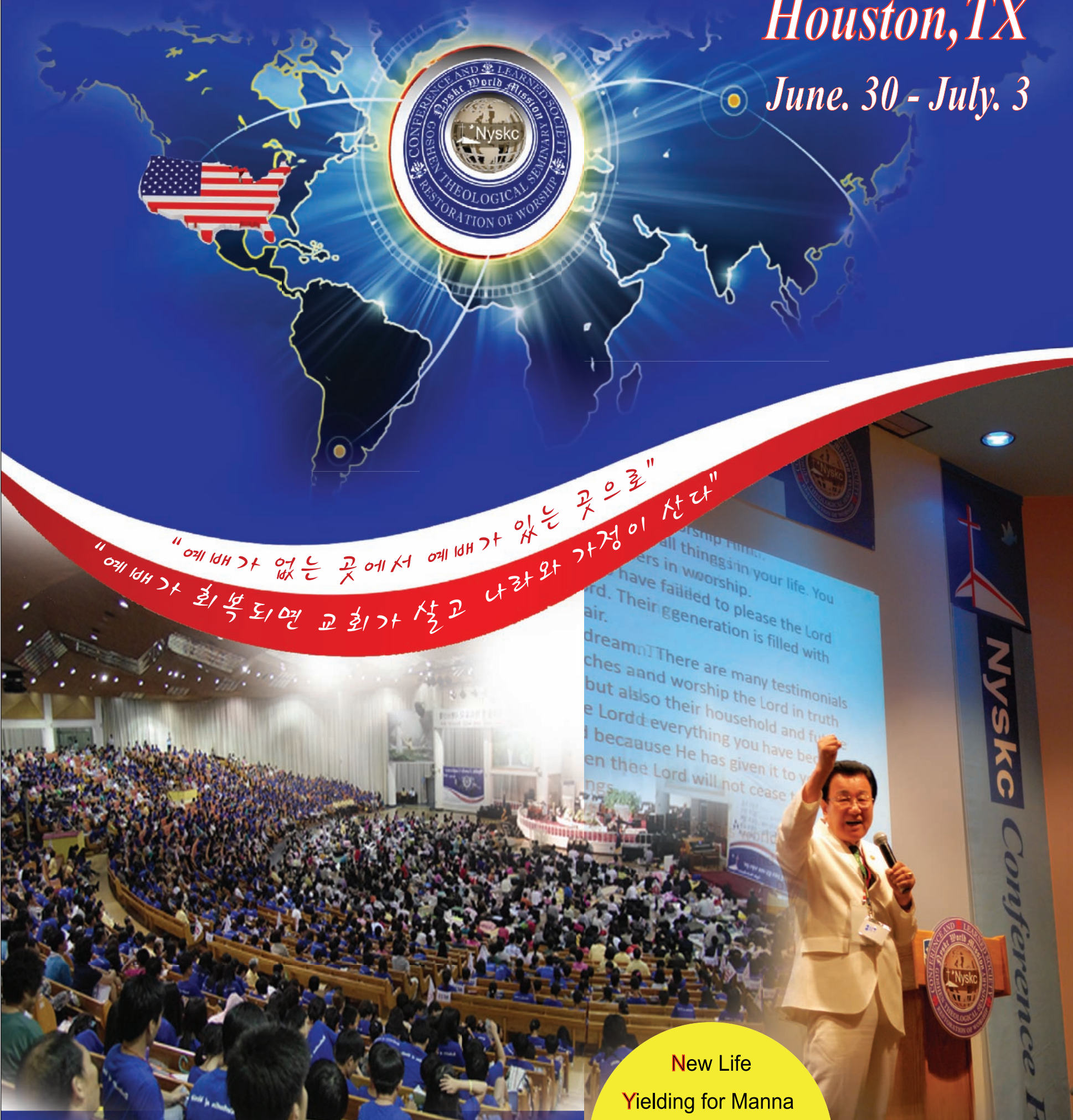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Nyskc Family Conference 2014

Houston, TX

June. 30 - July. 3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SH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Come, thou Burning Spirit, Come" (Act 2:2-4)
 "오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행사 안내 및 등록문의 U.S.A.
 대상 : Family & 목회자 부부
 등록마감일 : June 5, 2014
 참가비 : (교통비 별도)
 일반인 \$300, 목회자 1인 \$150
 T. 845.355.8829, 847.630.7308
 646.203.2644, 917.698.9965

New Life
 Yielding for Manna
 Salvation for one by one
 Keeping for LORD's day
 Complete Offering

휴스턴 텍사스 준비위원 임원 명단

- 자문위원 : 이재호 목사(중앙장로교회)
- 남부본부장 : 이민승 목사(새민음장로교회)
- 본부부장 : 송영일 목사(한인장로교회)
- 총형선 목사(휴스턴순복음교회)
- 총무 : 정용석 목사(버몬트제일연합감리교회)
- 서기 : 유희정 목사(동산연합감리교회)
- 교육분과장 : 이광재 목사(예담장로교회)
- 홍보분과장 : 김욱기 목사(영락장로교회)
- 국제협력분과 : 김준규 목사(코너스톤장로교회)
- 임원 : 강주한 목사(휴스턴비전교회)
- 조의석 목사(빛사랑교회)

Nyskc World H.Q. 조직위원회

- 총재 : 피종진 목사
- 대표회장 : 최고선 목사
- 상임회장 : 디모데박 목사
- 실무회장 : 이병완 목사

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 학회
 학회장 : 윤사무엘 목사

Nyskc World Mission
 www.nyskc.org / e-mail:nyskcworldmission@gmail.com

"2015 Nyskc World Conference는 Philadelphia에서"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5)

4) 아웨의 뜻

(1) 존재자 및 창조자

그렇다면 “아웨”란 명칭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과거에 이 이름의 어원을 겐 족속,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집트 또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 중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방종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아웨”란 명칭의 근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원은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출3:13-5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위의 해석이 맞다면, 다시 말해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가 “아웨”란 말과 관련이 있다면 이 “아웨” 역시 하야 동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하야 동사를 떠나서 존재를 의미하는 다른 동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아웨”라고 읽혀지는 글자에서 모음부호를 떼고 남은 네 글자(אָוֵ)는 “하야”(אָ) 동사라기보다는 “되다”라는 뜻을 지닌 “하와”(אָו) 동사의 미완료 3인칭에서 모음부호를 떼 형태와 일치한다. 많은 경우에 요드(י)와 와우(ו)는 서로 교환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동시에 하야 동사의 미완료 삼인칭 단수 “이흐에”(אָוֵ)에서 모음부호를 떼 (אָ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하와 동사에서 나왔다 볼 수 있으나 “에흐에”와의 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하와 동사보다는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YHWH(אֱלֹהִים)가 “하야”(אָ) 동사에서 나왔거나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웨”란 말이 하야 동사에서 나왔고, 그 표기가 אָו가 아니라 אָוֵ라면 이것은 하야 동사의 히필형이다. 히필형은 많은 경우에 사역(causing)의 의미를 지니므로 그 문자적인 의미는 “존재하게 하다” 또는 “존재하게 만들다”(make to be or to exist)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잘 부합한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절대적 존재 또는 존재 자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이나 철학적 특히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자이시

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뜻이 된다. 절대적 존재자 또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신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을 “부동의 동자”(the unmoved mover)라고 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의 변화를 초래하는 자”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우주의 창조자도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의 신의 개념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프로이스(Preuss)에 의하면 이런 해석은 구약적인 견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야(אָ)에는 “활동적이다”(to be active)의 뜻이 있어도 절대적인 존재라는 뜻에서의 “존재하다”(to be 또는 to exist)의 뜻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런 뜻은 당시의 히브리어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폰 라트(Von Rad)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구약학자였던 아이히로트(Eichrodt)도 프로이스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폰 라트에 의하면 “아웨”라는 명칭에 절대성(absoluteness) 또는 자존성(aseity) 등과 같은 철학적인 뜻을 부여하는 것은 이 용어의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뜻은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웨”라는 명칭과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가 동일한 뜻을 갖는다 본다. 그는 출3:14가 보여주듯 하는 바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즉 그들에게 있어서 그 분이 어떤 존재이며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가 뜻하는 바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기 있겠다.”[I will be there (for you).]이다.

아이히로트도 폰 라트와 대체로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도 역시 “아웨”와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또 “아웨”란 명칭이 하야 동사의 히필형이란 사실에도 반대한다. 그 이유는 하야 동사가 히필형으로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으로는 하야 동사의 히필형이 아닌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바라”(בָּרָא)나 “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아사”(אָסַף)가 사용되었다. 원래 “바라”(בָּרָ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동사이지만 창세기1-3장에서 이 두 동사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아웨”란 명칭이 하야 동사의 히필형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미국의 저명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한 근동학자인 알브라이트(Albright)와 그의 후계자들인 프리드만(Freedman)과 크로스(Cross)이다.

그런데 “아웨”란 명칭이 하야 동사의 히필형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가 비단 아이히로트만은 아니다. 학자들의 대부분이 히필형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아웨”란 명칭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들 중에도 의견의 일치가 없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명칭이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 명칭이 활동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가 하면 이 명칭이 두 가지 뜻을 다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주장대로 만일 “아웨”라는 명칭이 하야 동사의 사역의 뜻을 지닌 히필형이 아니고 일반적인 뜻을 가진 칼(qal)형에서 나왔다면, 그들 중 누구도 그 첫 음이 왜 “이”가 아니라 “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웨”란 명칭이 하야 동사의 히필형에서 나와서 “사물을 존재케 하는 자”라고 해석하든 아니면 칼형에서 나와서 “존재자” 또는 “존재하는 자”라고 해석하든 궁극적으로는 그 의미에 차이가 없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철학적으로 “절대적인 존재자”와 “존재의 근원” 또는 “창조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인 “아웨”의 뜻이 “절대적인 존재자” 또는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자이다”라고 한 벨 하우젠의 말과도 잘 어울린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성경 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라고 묘사한 구절들은 찾을 수 없으나 70인역에는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묘사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시35:10; 렘2:13; 17:13 등이다.

그러나 “아웨”가 당시의 언어적인 관습으로 미루어 “절대적인 존재자”라는 뜻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אֱלֹהִים) 또는 “에흐에”(אָוֵ)라고 하신 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름이 한 문장이나 동사의 미

완료형으로 표기된 예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당시의 언어적 관습이나 문법에 맞게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인간들이 하는 일들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출애굽 당시에 “하야”(אָ) 동사가 이들 학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이름인 “아웨”가 이러한 의미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출애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지으셨고 따라서 그 이름은 그 상황을 떠나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데는 그다지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사상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해서 절대적 존재개념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들어 있지 않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들 중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하야 동사가 절대적인 존재 또는 영원한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 쓰일 수 없다고 한 아이히로트도 “아웨”란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뜻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고대 바벨론에서도 “신은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우가리트(Ugarit)에서 발견된 문서에서도 “참으로 바알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없었던 주장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그리고 동일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면 그러한 개념은 당연히 하야(אָ) 동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존재를 나타내는 다른 동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히로트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은 “아웨”(אָ) 보다는 “에흐에”(אָוֵ)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אֱלֹהִים) 또는 “에흐에”(אָוֵ)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인 경우는 출3:14 뿐이므로 이것은 그때의 특수한 상황, 다시 말해 출애굽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뜻은 아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바로 출 3:12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

겠다”(עִמָּךְ)에 이마크; אִתְּךָ)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의 동사가 바로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אֱלֹהִים) 속에 나오는 “에흐에”(אָוֵ)이다. 그리고는 그 바로 다음 14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라고 하였고, 이어서 같은 절에서 이것을 줄여서 “에흐에”라고 하셨다. 이제 말씀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에흐에”가 같은 뜻으로 쓰였으리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에흐에”가 4:12,15에 나오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라는 문장 속에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아이히로트에 의하면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에서 강조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존재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사명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말한다. “모세와 그 민족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슈미트(Schmidt)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야 동사가 “지금 존재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돕는 자로서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의 본질(reality)은 곧 그분의 활동성(activity)”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두 개의 이름 중에서 “아웨”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또는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뜻한다면 “에흐에 아웨르 에흐에” 또는 “에흐에”는 출애굽과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는 더 나아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학자 미셸(Michel)에 의하면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독립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반하여 미완료형은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3:14에서 왜 완료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미완료(imperfect)형을 사용하셨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명사가 아닌 동사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셨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관여하시는 하나님 특히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에흐에”(I am)라고 하신 것과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 I am)라고 하신 사실은(요8:24,28,58)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계속>

Missional Church 선교적교회세미나LA

Ecclesiology for Mission Based on the Gospel of St. John (r)

INTENSIVE COURSE 집중수업 6th -9th July 2014 6th pm4:00~9:00 7th-9th am8:00~pm7:00

 Dr. John Hoi C. Kim <small>LA President, D.Min. at PTIS, D.Miss at GIS, 서울신대(ABSM)신학교교수, 아가스틴의사(남)의도성분석, 선교신학회를, 어머니명성 사도영성회 6년차자</small> 12h) Sunday Eve, Tues PM, Wed AM 1. Missional Church 2. Missional Ecclesiology Based on the St. John's Gospel 3. Ecclesiology of St. Augustine's City of God	 Dr. Donald W. Dayton <small>Chair Professor of STU, Ph. D. at U Chicago, Drew University, Asbury, 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역임,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오순절운동의신학적주류 12년차자</small> 4h) Tuesday AM 8:30-12:00 동역제공 (Rev. Jonathan Y. Chung) 1. Changing Approaches of Modern Church	LA캠퍼스 학위취득과정																	
 Dr. Moses B. Lee <small>Ph. D. in Intercultural Studies, Th. M., MA at Fuller, President of King's Divinity School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역임</small> 10h) Monday AM 8:00-PM 7:00 1. Biblical Foundation on Mission	 Dr. Terrance Curtis <small>President of SRCIS Former President of Housto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rainer of Personal Evangelism</small> 6h) Wednesday PM 1:15-7:00 동역제공 (Dr. Kyoung J. Kim Ph. D.) 1. A Look at Ecclesiology in today's American Society Trends of the Church in the 21st Centur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ell and House Church Movemen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학위 (Degree)</th> <th>학점</th> <th>수학연한</th> <th>지원자격</th> </tr> <tr> <td>학사과정 (B.Th)</td> <td>120~128 학점이상</td> <td>4년</td> <td>고졸/동등이상</td> </tr> <tr> <td>석사과정 (M.Div)</td> <td>64~90학점이상</td> <td>3년</td> <td>대졸/동등이상</td> </tr> <tr> <td>박사과정 (D.Min) (D.Miss)</td> <td>32~48학점이상</td> <td>2년</td> <td>M.Div, 철학을 취득하지 않은 동등이상 학력이 인정되므로 원근의 투회경력률 소유한자</td> </tr> </table>	학위 (Degree)	학점	수학연한	지원자격	학사과정 (B.Th)	120~128 학점이상	4년	고졸/동등이상	석사과정 (M.Div)	64~90학점이상	3년	대졸/동등이상	박사과정 (D.Min) (D.Miss)	32~48학점이상	2년	M.Div, 철학을 취득하지 않은 동등이상 학력이 인정되므로 원근의 투회경력률 소유한자	
학위 (Degree)	학점	수학연한	지원자격																
학사과정 (B.Th)	120~128 학점이상	4년	고졸/동등이상																
석사과정 (M.Div)	64~90학점이상	3년	대졸/동등이상																
박사과정 (D.Min) (D.Miss)	32~48학점이상	2년	M.Div, 철학을 취득하지 않은 동등이상 학력이 인정되므로 원근의 투회경력률 소유한자																
 Dr. Chang B. Lee <small>Ph. D in Near Eastern Languages and Cultures & MA at UCLA, Th.M at Fuller, ITS, 에번젤리시안대학교수, Ellis R. Brotzman,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10년차, 구약본문비평의 이론과실제</small> 3h) Tuesday PM 1:15-4:00 1. Ecclesiology Based on the O.T.	<p>학과 1과목 - 학사\$200, 석사\$250, 박사\$300 청강 디플로마 \$100</p> <p>남부 개혁 신학대학 및 신대원</p> 																		
<p>장소 LA Branch 2975 Wilshire Blvd., #415 Los Angeles, CA 90010 본교 4740 - H Dacoma St., Houston, TX 77092 213-219-0649 bostonch@hotmail.com www.srcis.org</p>																			



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남부개혁신학대학및신대원
 President Dr. Terry Curtis

LA Presidenet Dr. John H. Ki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이재훈 | 두란노 | 280쪽

故 하용조 목사를 이어 온누리교회를 이끌고 있는 저자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은혜가 은혜될 때 진리가 더 밝히 드러나고, 그러므로 진리를 외면하면 은혜가 사라진다고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은혜는 진리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높이는 것이다. 더 엄격한 진리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존 오웬 | 생명의말씀사 | 200쪽

저자는 책에서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므로, 그분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보편 구원론'의 잘못을 논박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사역, 인간의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를 하나 하나 지적하고 있다.



보이는 소리 들리는 마음

노선영 | 가교출판 | 224쪽

저자는 '도전하는 열정에 장애는 없다'는 주제로 여러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선천성 청각장애로 태어나 일반 학교를 다니며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고 자살시도까지 했지만, 특유의 긍정 마인드와 열정, 도전정신으로 한계를 뛰어넘었다. '역경'을 뒤집어 '경력'으로 만들고 싶은 이들의 필독서.



종이가 만든 길

에릭 오르세나 | 작은씨앗 | 360쪽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식인인 저자는, 인류를 위해 오랫동안 가장 위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오늘날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종이'를 위해, 발상지인 중국에서 이탈리아, 일본, 인도, 캐나다, 스웨덴, 인도네시아, 브라질로 이어지는 5대륙 15개국 대장정을 통해 유서 깊은 기억과 소중한 흔적들을 고스란히 되살려낸다.



REVIEW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

"사탄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데 있다. 사탄의 공격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그의 공격 대상이 되며,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다가가 끊임없이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유혹한다."

터치북스 출판사의 '스펠전 위즈덤(Spurgeon Wisdom)' 시리즈 다섯 번째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은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펠전의 설교 3,500여 편 중 '영적 전쟁'에 대해 가려 뽑은 7편을 모은 책이다. 그래서 부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7가지 원리'이다.

성경대 배본철 교수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적했듯, 귀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에게 속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천국이 반드시 있듯, 사

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천사의 반대편에서 '삼지창을 들고 악마처럼' 서 있지 않고, 우리의 의식 속에 있다.

스펠전도 이에 동의한다. "사탄은 밤의 환상도 아니며,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환영도 아니다. 환상도 환영도 아닌 그 사악한 존재는 지금도 우리 곁을 떠돌며 우리가 죄를 짓도록 달콤한 말로 부추긴다."

스펠전 자신도 '인생의 위기'에서 치명적인 독화살을 쏜 '대적자'를 맞이한 이후, 사탄의 존재와 그가 자신의 영혼을 대적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

사탄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도 믿지 않으며, 대체로 지금껏 사탄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앞

로도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이 굳이 그들에게 찾아가갈 이유가 없다."

이쯤 되면 우리의 죄를 모두 '그놈 목소리' 탓으로 전가할 수 있지 않을까?

"사탄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죄의 원인을 사탄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버려진 땅에서 온갖 잡초와 영경퀴들이 저절로 자라나듯, 죄는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 속에서 저절로 자라난다."

책에서 스펠전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사탄의 정체와 그가 쏘아대는 화살들과 달콤한 유혹들에 대해 폭로하고, 사탄의 계약



승리가 보장된 싸움 찰스 스펠전 터치북스 | 240쪽

에 맞서는 여러 방법들과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탄의 정복자'이신 그리스도 덕분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제 사탄이 당신을 괴롭게 하려고 부르짖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비난한다면, 그에게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

자. 사탄의 유혹에 뒷걸음질 친다면 결과는 패배일 뿐이다. 사탄의 온갖 유혹을 선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사탄과 맞선다면, 그는 곧 싸움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종종 성경 말씀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정도로 교활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저자는 그 유일한 방법을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답한다. 이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내 삶의 안식처로 삼아야 가능하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서 무기와 병기를 얻어 싸운다면, 우리는 사탄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섬유하신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이대용 기자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 물건을 들다가 빼앗겨 허리가 아픈 분
-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닦!

비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작은 거인’ 이라 불리는 두 여성의 아름다운 이야기

희망 멘토 김해영과 개그우먼 이성미, 나란히 책 펴내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김해영 | 두란노 | 264쪽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두 여성이 나란히 같은 출판사에서 에세이를 펴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와 〈숨지 마, 네 인생이잖아〉, 〈당신도 언젠가는 빅폴을 만날 거야〉에 이은, 국제사회복지사 김해영 선교사의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와 자녀 양육을 위해 캐나다로 떠났다 다시 돌아온 이성미 집사의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이다. 김해영이 ‘희망’을 말한다면, 이성미는 ‘사랑’을 노래한다.

◆“나야말로 그 마을에서 희망을 찾아냈어요”



김해영 선교사

134cm라는 작은 키로, 원망과 불평 대신 오지 아프리카로 떠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김해영 선교사. 조금

씩 알려지다 보니,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 리카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그토록 강력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궁금해 한다고 한다. 성공하는 비법이나 결핍을 강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결 말이다.

하지만 김 선교사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한 다큐멘터리 촬영팀 PD의 스티븐 건넨 말을 듣고는 깨달았다. “한 사람의 인생에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14년 동안 수많은 아침을 맞았다. ‘다행이다, 오늘이 아침, 살아있지 않은가!’ 하며 맞았던 날들이다.

“그 아침이 오기까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죽음을 경험한 날들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김 선교사는 말씀처럼 자신이 ‘굿호프(Good Hope)라는 거친 땅에 심긴 한 알의 밀알 같은 처지’였다고 말한다. 그 호프는 남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그녀는 20대 중반에 평생 처음 들어 본 이 나라에 가게 됐다. 14년 후, 지금 천만다행으로 그 긴 시간 죽고 또 죽는 과정을 통과하며 마침내 온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 이 한 날이 거칠고 힘들어도, 내일 아침이 온다는 단순하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성미 | 두란노 | 324쪽

소박한 믿음 안에서 평화와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해영 선교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한 순간을 보츠와나의 굿호프 마을에서 살던 시절이라고 고백한다. “마치 목걸이 한가운데 걸린 보석과 같이, 반지 위에 올려진 보석과 같이 이 시절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서 반짝이며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거친 환경에서 보츠와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간 삶의 희망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나야말로 그 마을에서 희망을 찾아냈으니 말입니다. 그 호프 이야기는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행복이자 하나님 안에서 찾은 삶의 의미입니다.”

◆캐나다로 떠나, ‘기도’ 덕분에 ‘사람’이 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놓을 수 있어서.”



이성미 집사

책 제목도 그렇고 위의 고백도 그렇고, 뻔한 듯하지만 쉽게 꺼낼 순 없는 말이다. 하지만 이성미 집사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속에서 만난 주님이 계셨다. “숨쉬는 것조차 포기했을 때, 사랑이 막혀 있을 때, 바다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대책도 없이 ‘아들의 유학’을 핑계로 떠난 캐나다. 하지만 뒤늦게서야 이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밤이 밝아고 낮이 낮인 시간을 얼마 만에 가져본단 말인가!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이들 옆에서 하루종일 엄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린 내게 캐나다는 하나님님이 주신 쉼터였다. 정말 감사했다.”

이 집사는 정착했던 밴쿠버에 이민 교회와 세위지는 등 나름대로 적응해 가던 차에, 서울에서 ‘톱 텔런트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듣고는 너무 놀라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실제로 통화를 해 보면 후배들은 ‘다음엔 내 차례 아닌가’ 해서 무서워 떨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다, 뜻하지 않은 기도가 나왔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집

사 자신도 놀랐다. 후배들에게도 돌아와 달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결국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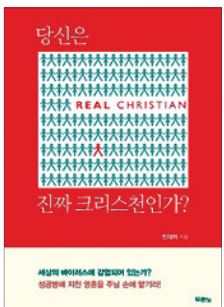
“내가 안주한 곳에서 떠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알았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생각났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도 알 것 같았다.” 힘들게 영주권을 얻었고, 시민권 획득을 앞두고 있었지만 돌아섰다.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넌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다른 나라 시민권이 또 필요하니?”라고 물으셨기 때문이다.

이 집사는 캐나다 생활에서 ‘기도’를 얻었다. 기도 덕분에, ‘새 사람’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돌아와서 그녀는 “하나님이 왜 나를 가장 전성기일 때 캐나다에 보내셨는지” 알게 됐다고 한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떠났기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다. 만일 슬럼프에 빠졌을 때 떠났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돌아올 자리까지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모두 버리고 갈 수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성미 집사는 책에서 이외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단상과 어린 시절, 그리고 여러 연예인 공동체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예배가 세워지는 과정과 ‘간증계의 이효리’로 놀림받은 사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세상에 적 두더라도, 세상적인 크리스천 되지 말라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인가?>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인가?
진재혁 | 두란노 | 236쪽

‘다름, 바름, 다행, 버림, 드림, 끌림, 따름.’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가 책 1부에서 제시하는 ‘진짜 크리스천’의 조건들이다. 성경 속에서 ‘안디옥교회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듯,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저

자는 묻고 있다. ‘거꾸로 세상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소개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냐고 오히려 반문해 온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듯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 그리스도와 비슷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주님의 제자로 여기고 그 생각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먼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저자는 ‘성공, 직업, 직장, 시간, 가정, 재물, 안식’ 등에 대해, 세상의 기준들과 다른 ‘진짜 크리스천’들의 가

치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짜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해 있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적을 두더라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알고는 있다. 지키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저자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고 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한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지혜가 맞부딪힌다. 그래서 늘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자 할수록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늘에 속했다고 우리끼리 머물러 있어선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야 한다.

진재혁 목사는 2부에서 구체적인 가치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성공: 사람의 사랑을 얻으면 성공이다

- ▷ 직업: 최선의 열매로 직업을 대하라
- ▷ 직장: 주님을 사장으로 모시라
- ▷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 ▷ 문화: 일상에서 창조하라
- ▷ 가정: 방패 같은 가정을 만들라
- ▷ 재물: 돈의 신을 섬기지 마라
- ▷ 안식: 믿음이 곧 안식이다
- ▷ 평안: 피스메이커에게 평안이 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임팩이 경합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WWW.nbcorset.co.kr
345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제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금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금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 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h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트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2014 뉴욕 할렐루야대회 3일간 대장정

첫째날부터 쏟아진 은혜의 단비 마지막날 성령 강조... 사명문 선언하고 폐회

2014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가 13일 오후 7시 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요16:33)는 주제로 개최됐다.

첫째날 대회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뉴욕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로 대회 장소가 가득 찼다. 뉴욕수정성결교회 경배와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대회는 황영송 목사(정소년분과위원장)의 인도로 김승희 목사(대회장, 뉴욕교회회장)가 대회사를 선언하며 3일간의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김승희 목사는 대회를 통해 "지난 세월호 참사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며 전방위로 우리 영혼과 사회를 짓누르고 있지만 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만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이제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놀라운 생명력과 풍성한 삶을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는다"고 했다.

강사 고훈 목사는 설교를 세월호의 슬픔을 전하며 시작했다. 고훈 목사가 답답하는 안산제일교회는 이번 세월호 사태로 12명의 학생을 잃었다.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 14명 중 2명만이 살아 돌아왔고 구조되지 못한 12명의 학생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지금도 애도의 물결 속에 있다.

고훈 목사는 미처 언론에 다 알려지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도 슬픔 속에서 아직까지 헤어내기 힘들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안산제일교회 학생 중 한 명은 참사 당시 구명조끼를 챙기면서 승객들을 다 구조한 뒤 나가겠다고 했던 희생자 박지영 승무원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 고훈 목사는 이 학생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챙겨준 승무원 누나가 구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그 트라우마가 살아날 것이라며 세월호의 슬픔을 잊기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일 먼저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렀던 학생의 어머니는 고훈 목사가 학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곳에 도착하자 시신을 향해 "애야, 사랑하는 목사님이 왔다 인사드려야지"라고 말하고 그대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돼 지금까지 두 달을 병원에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어 고훈 목사는 "며칠 전 미국에 있는 손자의 아이 얼굴을 보다가 눈물이 나서 더는 볼 수



강사 고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가 없었다"면서 "5살 손자에게 눈이라도 줄 수 있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고등학생까지 다 키워 놓은 자식을 보내야 했던 부모님의 슬픔은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훈 목사는 세월호 참사가 슬픔만을 남긴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고훈 목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역사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들려온 여러 간증의 소식들도 함께 전했다.

고훈 목사가 이날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나 죽음의 문턱으로 갔을 때나 고훈 목사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송을 마음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런 환난 중에도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병까지 치료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올해 할렐루야대회의 주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 찬송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훈 목사는 이날 '디아스포라여, 당신은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본격적인 설교에서 고훈 목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는 식당을 세웠고, 한인 디아스포라는 교회를 세웠다. 한인 디아스포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훈 목사는 예배에 대해 "요엘서 1장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와의 전에 끊어졌고 제사장이 슬퍼한다고 했다. 절대로 제사장들이 울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배가 끊어질 때 제사장은 눈물을 하나님께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빠질 때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어거스틴은 예배는 생명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예배를 생명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훈 목사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 성령의 이끄심으로 교회당을 찾아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며 당시 느꼈던 예배의 감격을 전했다. 또 폐야 구멍이 나서 끊이지 않는 기침으로 인해 예배의 앞자리에 앉을 수 없어 예배 시작과 동시에 뒷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는 축복을 하

나님이 주셨다"고 간증했다. 이어 찬송에 대해서도 설교하면서 자신은 "암에 걸렸어도 저는 '그 피가 맘 속에' 찬송을 불렀다. 찬송을 부르면 암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간다. 찬송은 우리 삶의 맥박"이라고 강조했다.

고훈 목사는 "황소는 왕이 드리는 제물이었는데 왕이 드리는 황소보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더욱 기쁘게 받으신다는 구절이 저는 그렇게 기쁠 수 없다"면서 "암이 제거되며 심이장이며 온 내부 장기에 퍼져서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다. 마취제를 맞아도 듣지 않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때 스테판 집사, 손양원 목사 등의 순교자들이 생각났다"면서 "나는 소독약도 바르고 의사도 옆에 있는데 순교자들은 소독약 하나 바르지 않고 약 하나 안 먹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몰려왔다. 그것이 찬송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고훈 목사는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다. "성도에게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찬송은 맥박"이라면서 "육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은 말씀을 먹으면 살아난다.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막으면 모든 것이 막히고 불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훈 목사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열쇠를 쥐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훈 목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결국 쉬는 날로 만들었다. 옛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을 쉬니까 주일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이 날마다 온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인데 왜 예배를 멀리 하는지 가슴을 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대인보다, 물론교도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예배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15일 대회선언문을 발표하고 2014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가 폐회했다. 오후 5시 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마지막 집회에서는 그동안 어린이 할렐루야대회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설교 후에는 질병 치유를 위한 통성기도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마지막날 집회는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예배를 준비한 후, 김석형 목사(용어일랜즈성결교회)의 예배 인도, 김재일 목사(뉴욕중부교회)의 기도, 소프라노 유경화의 '주님의 옷자락' 특송, 박영진 장로(이사장)의 성경봉독, 프라미스성가대(지휘 이정진 장로)의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찬양, 고훈 목사의 설교, 이주의 장로(부대회장)의 헌금기도, 뉴욕장로성가단의 '백성들이 일어나라' 헌금특송, 이재덕 목사(부대회장)의 선언문낭독, 어린이할렐루야대회 참석 어린이들의 특별찬양, 장경혜 목사(총무)의 광고, 김남수 목사(고문)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고훈 목사는 '디아스포라여,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는 자가 가진 상속자의 위치에 대해 강조했다. 고훈 목사는 "세상에서는 재벌 총수의 아들을 상속자로 크게 부럽게 바라본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의 상속자"라면서 아무 것도 염려할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고훈 목사는 설교 이후에는 질병 치유를 위한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참석한 성도들도 마지막날을 맞아 모두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고훈 목사는 기도를 인도하면서 자신을 죽

음에 이르게 했던 질병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이겨낸 것과 같이 병을 물리치는 기도와 믿음에 대해 강조했다.

또 이날 참석한 성도들은 대회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삼의 현장에서 모범되기 △믿음의 가정 세우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이웃교회들과 교제와 협력 △복음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협력 △이단 사이비의 배척과 교회 보호 △평화를 위해 그리스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할 것 등을 다짐했다. 다음은 대회선언문.

제35차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를 마치며 생기로 새롭게 거듭난 뉴욕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개인)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떳떳이 산다.
2. (가정)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간다.
3. (교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충성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4. (교계)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이웃 교회들과 함께 즐거이 교제하며 협력하여 범기독교의 연대감을 증대한다.
5. (선교)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한다.
6. (이단)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사이비 이단세력을 배척하며 악한 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힘쓴다.
7. (사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한인 동포 사회와 미국, 더 나아가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한다.

김대원 기자



할렐루야대회 마지막날인 15일 집회에서 어린이할렐루야대회 참석자들이 나와 특별찬양을 했다.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로계 종사자(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 많고 유능한 교수 의료진 서비스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June Special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New!



**(FULL OPTION)
ALL NEW
2015 GENESIS
SEDAN**

\$429 ^{+TAX}
36
Mon.

MSRP: \$55955 / SELL: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New!



**2014
HYUNDAI
SONATA GLS**

\$89 ^{+TAX}
36
Mon.

MSRP: \$22,350.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FEES}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